

## 중-EU 정상회의의 평가 및 시사점

이지용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중국연구센터 조교수

### 주요내용

- (현황) 2017년 6월 1일에서 2일 제19차 중국-EU 정상회담이 개최되어 안보, 경제, 사회문화 및 인적 교류 등 약 30개항에 이르는 결과를 도출하였음.
- (원인과 분석)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세계화와 자유무역에 대한 미국의 거부감이 형성되는 가운데, EU와 중국은 협력적 대응과 공조를 추구하고 있음. 하지만 중국-EU는 공동 성명 도출에 실패했고, EU가 중국에 대한 시장지위 인정을 거부하는 등 양자 협력의 한계를 뚜렷이 보여주었음.
- (전망과 시사점) 양자 간 무역불균형 문제와 국제규범 등에 대한 이견 차에도 불구하고 향후 금융 및 개발 투자, 사회문화 교류, 비전통안보영역에서의 협력 등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할 수 있음.

### 1. 이슈 현황

- 2017년 6월 1-2일 브뤼셀에서 제 19차 중국-EU 정상회담이 도널드 터스크(Donald Tusk)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의장, 장클로드 웅커(Jean-Claude Juncker) EU 집행위원장,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음.

- 이번 개최된 제19차 중국-EU 정상회의의 결과 양자는 총 30개항에 이르는 논의결과를 도출하였음(표 1 참조).
- 중국-EU는 양자관계, 경제투자협력, 상호연계성(connectivity) 강화, 사회문화, 그리고 인권 등의 사안에서 포괄적인 협력 안을 도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글로벌 차원의 과제들과 거버넌스 이슈와 관련해서, 정상회담에서는 기후변화, 에너지 협력, 이주와 난민문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아젠다 2030(the Agenda 2030),' 그리고 테러리즘, 재난관리 및 안보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음.
- 외교안보 정책과 관련해서는 시리아, 리비아, 우크라이나 문제와 북한 핵무기 개발문제와 남중국해 문제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음.

- 제19차 회의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세계화와 자유무역에 대한 미국의 반조류가 형성되는 가운데, EU와 중국의 협력적 대응과 협력 가속화가 기대되면서 회의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었음.
- 특히 EU 차원에서 중국과의 경제협력 가속화가 모색되고, 중국이 일대일로를 추진하면서 양자 간 협력 증진 필요성이 배가된 가운데 개최되었음.

표 1. 제19차 중-EU 정상회담 결과 주요사안

순번	주요사안
1	[중-EU관계] 중-EU 간 UN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지지하고, WTO 규범을 지키며, 개방된 세계경제를 촉진한다는데 합의하고, 중-EU 관계가 전례 없는 최상의 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함.
2	[안보협력] 제7차 중-EU 고위급 전략대화 결과에 따라 양자 간 안보대화 및 협력을 강화함.
3	[경제협력] 일대일로 구상과 대유럽투자계획을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제고함 - 중국 실크로드 기금, 유럽투자기금, 그리고 중-EU 합작 투자기금 설립.
4	[경제협력] 중국의 WTO 가입 의정서 제15조항(불공정무역과 관련한 새 규정을 제정할 때 WTO 원칙 준수) 의무이행 논의 및 투자협정(BIT)협상 추진 등.
5	[과학기술, 사회문화협력] 중-EU 간 과학기술 협정을 체결, 사회문화 및 청소년 교류 활성화 합의.
6	단기비자절차 간소화, 법무 대화 개최(2017년 내)
7	재난위기관리 협력 촉진
8	2018년 '중-EU 여행의 해' 실행에 대한 협정 체결 등.

출처 : <http://en.chinca.org/spotlights/4005.jhtml> (검색일: 2017. 6. 17.).

- 다만, 이번 제19차 정상회담 결과를 정리한 중국-EU 회담 공동 성명 도출에 실패한 것과 중국이 강력하게 요구한 중국의 시장지위 인정을 EU가 거부한 것은 이번 회담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음.

## 2. 원인과 분석

- 중국-EU 관계는 양자 간 금융, 투자, 통상, 글로벌 안보 문제 등에 공유된 이해가 증가하면서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음.

- 중국은 외환보유고 중 달러보유 비중을 축소해나가고 있으며, 현재 전체 보유액 중 1/3을 유로화로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비중을 점차 증가시키고 있는 추세임.
- 특히 독일 채권을 중심으로 유로국가들의 채권보유량을 증가시키면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유로지역 국가들의 금융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EU 국가들은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는 중국의 최대 역외 위안화 시장을 형성하면서 상호 간 금융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 중국과 EU의 교역액은 2002년을 기준으로 2016년 약 5배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유럽은 현재 중국의 최대 해외직접투자 대상지역임.
- 4월 19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중국-EU 전략대화(China-EU Strategic Dialogue)에서 양자는 트럼프의 대외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유했으며, 양자 간의 전통, 비전통 안보 이슈영역에 대한 협력 강화를 모색한 바 있음.

□ 중국-EU 협력관계 강화의 정치적 배경에는 ▲ 영국의 브렉시트 결정으로 EU 통합에 위기 발생 상황 ▲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세계화에 역행하는 미국의 일방주의적이고 자국이익 중심적 정책 전개 등이 강력히 작용하고 있음.


- EU 회원국의 한 축을 이루면서 그동안 유럽 국가들을 서방세계 중심의 동맹체제에 묶어놓는데 결정적 역할을 해왔던 영국의 브렉시트 결정은 중국-EU 정치안보 협력 강화에 한 요인으로 작용.
- 트럼프가 NATO에 대한 방위비 증액 강요와 미국의 지원 축소 가능성을 시사함과 동시에, 파리기후협약 탈퇴 선언 등 세계화에 역행하는 행보를 보이면서 대안적 협력 파트너로 중국의 중요성이 증가하였음.

□ 하지만, 중국-EU 협력 강화가 양자 중심의 국제정치경제 구도 변화를 모색하는 협력관계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일부 평가는 양자관계의 속성을 매우 과대평가한 것임. 양자협력강화 추세는 여전히 한시적, 조건적이며 향후 관계발전에는 한계가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안보협력과 관련, 재난구조, 테러리즘 등 비전통안보 영역에서의 협력은 강화될 수 있으나, 전통안보와 관련해서 양자는 인권과 국제규범 등의 가치기준과 러시아와 유럽 관계와 같은 안보이익 등에서 공통의 지향점을 찾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임.
- 경제협력과 관련해서도 양자 무역불균형은 지속되고 있으며, 중국의 철강과잉공급 해소, 비관세 장벽 완화에 대한 중국의 소극적 자세, 중국의 외국투자자에 대한 높은 차별 장벽 등의 이슈에 대한 이견차 해소 실패로 이번 19차 회담 공동 성명 도출에 실패한 배경이 되고 있음.
  - 특히 EU측은 양자 간 무역통상 문제에 대한 이해와 입장차가 해소되지 못하면서 중국에 대한 시장지위 부여를 거부하였음.
  - 또한 현재 중국이 당면하고 있는 경제문제로 인해 중국정부가 EU측이 요구하는 정도의 과잉공급 축소, 비관세 장벽 철폐, 투자 및 금융시장 개방을 구조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것도 향후 중국-EU 간 경제협력 심화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중장기적으로 미국의 정책변화, 유럽정치 및 경제조건 변화 양상에 따라 현 협력기조가 제한될 수 있는 개연성도 있음.

### 3. 전망과 시사점

#### ■ 중국과 EU 간 금융, 개발 투자 영역에서의 협력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재정 및 금융시장 불안정에 대응해야 하는 EU로서는 중국의 투자유치에 경제적 이해를 가지고 있으며, 중국 또한 위안화 국제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EU에 대한 투자와 시장접근성을 확대하는데 이해를 가지고 있으므로 양자 간 협력이 지속될 것임.
- 중국이 일대일로를 추진하면서 EU는 개발투자 시장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으며, 중국은 일대일로 사업에 EU 자금을 수혈함으로써 상호 ‘윈-윈’을 추구할 것임.
- 양자 간 무역불균형 해소문제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슈화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겠으나, 물류 기반 및 제도 수월성 제고 등으로 교역액과 범위는 확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중국의 비관세 장벽, 외국투자자 차별, 제한된 금융서비스 시장 개방 등으로 향후에도 EU가 중국에 시장 지위를 부여할 가능성은 제한적임.
- 양자 간 환경 및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에서 협력 강화를 추구하고 있으나 중국이 EU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협력하는 방향에 있어선 선언적 차원 외에 실행단계에는 한계가 있을 것임. 

#### 참고문헌

- <http://en.chinca.org/spotlights/4005.jhtml> (검색일: 2017. 6. 17.).
- <file:///C:/Users/admin/Downloads/170531%20China%20background%20brief%20FINAL.pdf>. (검색일: 2017. 6. 10.).
- [https://eeas.europa.eu/headquarters/headquarters-homepage\\_en/8666/EU-China%20relations,%20fact%20sheet](https://eeas.europa.eu/headquarters/headquarters-homepage_en/8666/EU-China%20relations,%20fact%20sheet) (검색일: 2017. 6. 10.).
- [https://eeas.europa.eu/sites/eeas/files/eu-china\\_factsheet\\_0.pdf](https://eeas.europa.eu/sites/eeas/files/eu-china_factsheet_0.pdf) (검색일: 2017. 6. 10.).
- “A New Era for EU-China Relations?,” Foreign Affairs, <https://www.foreignaffairs.com/articles/china/2017-06-06/new-era-eu-china-relations> (검색일: 2017. 6. 17.).

#### 알립니다

- CSF 이슈분석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서 발간하고 있으며, 저작권 정책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제 3유형’에 따릅니다. 해당 원고에 대해 사전 동의 없이 상업 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무단 전재·변경·제 3자 배포 등을 금합니다. 또한 본 원고를 인용하시거나 활용하실 경우 출처 표기 원본 변경 불가 등의 이용 규칙을 지켜셔야 합니다.
- 본 원고에 대한 글, 그림, 사진 등 저작권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모든 자료에 대한 저작권 책임은 저자 본인에게 있으며, 해당 원고의 의견은 KIEP 및 CSF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